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기 위한 태권도 현안과 제언*

김현일**(청주대학교 부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태권도의 문화·산업적 가치 확인과 한민족 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과 협력의 필요, 나아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기 위한 태권도의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 과제를 찾기 위한 것이다. 태권도는 한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국제 메가 이벤트에 설 만큼 글로벌 대중적 스포츠로서의 상품적 가치도 지녔다. 이는 20세기 말 등장한 새로운 주요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융복합을 통한 문화 자원의 산업화 경제 개념인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국가 자원에 부합하는 최적의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성장한 ‘한류’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요 원동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태권도는 한민족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한 한류 1세대라 할 수 있다. 한류로서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남북한 각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성공을 떠나 미시적, 거시적 관점 모두에서 성공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 우선 과제로,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요건에서 밝히는 핵심 사안과 같이, 태권도 주요 주체인 WT와 ITF의 ‘상호 존중’이 절대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이들 두 단체 이외의 다양한 태권도 단체와의 상생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거시적 전략과제로서,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내포하는 의미인 ‘소멸 위기’ 문화가 아니어만 한다. 즉, 글로벌 대중적 스포츠로서 지속 성장하여 세

* 이 연구의 중간 과정 원고는 WT 주최 ‘제2회 스포츠태권도국제융합컨퍼런스’의 ‘한국무예학회’ 연구발표집에 수록하였음

** skihufs@gmail.com

계 각국에 확산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태권도가 각 문화 민족, 국가 토양에서 지역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문화 가치로 재창조될 수 있는 수준에 오름을 지행 과제로 삼아야 한다.

주제어 :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태권도산업, 태권도 한류

I. 서론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태권도를 손꼽는 데 주저하는 대한민국인은 적을 것이다. 1971년 국기로 지정된 태권도는 1972년 국기원을 개원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양진호, 정찬수, 김동규, 2009). 비록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의 권법과 관련하여 태권도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과 논란(김산, 김창우, 송일훈, 2008; 김태일, 2008; 송형석, 이규형, 2008; 안재찬, 2016; 차명환, 2021)이 일부 있었으나, 남과 북한 국민에게 있어 태권도는 화랑도, 택견 등 민족정신과 무예 등으로부터 기원을 찾는다는 믿음과 민족 문화 유산으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국제무대에서도 태권도의 발상지가 대한민국임을 의심하는 정당한 논리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태권도의 세계화는 더욱 빨라졌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나타나기 시작한 ‘한류’는 다양한 국가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의 산업적 가치로서의 ‘신한류’ 부흥기에 접어든 상태며(박재경, 2018) 특정 음악, 드라마, 영화 콘텐츠의 사례와 같이 최근 글로벌 대중문화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역사 이래 찾아보기 힘든 한국 문화전성기라 할 수 있다. 한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2022) 뉴욕지사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트렌드 시장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중 미국인이 가장 즐기는 한국 음식을 조사한 결과 1위는 ‘라면’, 2위는 ‘양념치킨’으로 나타났다. 태권도는 그 태동이, 한·중·일 삼국의 문화가 섞여 있고, 일제강점기 역사

적 배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점이, 우리가 가장 애호하는 음식으로 ‘자장면’, 그리고 ‘라면’ 과 매우 유사하다(유중하,2018; 이정근, 2014; 정명섭, 2021).

1945년 해방 직후 태동한 태권도는 1960년대 전후 국제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올림픽이라는 국제 메가 이벤트에 섰기에 한류 1세대 문화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유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근거로 2005년 태권도 진흥재단을 설립하고 20014년 태권도 공원을 개원하였다. 이어 지난 2018년 UNESCO 공동등재 협력에 합의하였고(뉴스핌, 2018; 무카스, 2018; 한겨레, 2018), 2020년 즈음을 시작으로 WT, 국기원, 태권도원 그리고 전라북도가 협력하여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활동을 시작했다(뉴시스, 2021; 무카스, 2022; 비즈월드, 2021; 스포츠투데이, 2022, 프라임경제, 2022; 한스경제, 2021; KBS,2020).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논란의 정체성이나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떠나서라도, 현시점에서 과연 태권도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이루어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태권도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미래 산업적 가치의 여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공적자금 지원의 명분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우선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태권도의 문화유산과 스포츠 상품으로서의 가치

2000년대 초반 일부 국가에서 문화산업이 경제질서의 새로운 앵커 기능을 수행할 그 가능성에 집중하였다. 1990년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제시한 ‘樂美愛眞’ 경제모델 개념은 버블 붕괴가 발생한 일본 열도를 살리기 위한 신 경제 가치 창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J-pop 열풍을 경험한 일본은 무형적 자산 특히,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이 지식과 융복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뒤이어 호주는 1998년에 호주만이 가진 독특한 자연, 문화, 관광 자산 가치를 국가 산업 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정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뒤이어 1999년 영국은 문화산업 주무 부처인 DCMS(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에서 기울어져 가는 영국을 살리려는 방안으로 광고, 출판, 미술, 디자인, 건축, 패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게임 등 분야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채택한다. 헤리포터 등 다양한 출판물의 파생적 열풍, 영국 중소 도시의 다양한 문화 축제, 런던 올림픽 개최, 프리미어 리그의 부활 등도 영국 정부의 육성 정책이 배경에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 수용되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중심되는 글로벌 IT 기반 융복합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이루었고, 4차산업혁명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대한민국도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정책 기조로 채택한다. 위와 같이 기술한 경제 정책 개념을 우리는 ‘Creative Economy’, 즉 ‘창조경제’라 부른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3;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7; NESTA, 2010; UNESCO, 2008; UNESCO, 2010; White, 2009).

스포츠는 이 창조경제의 육성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조건이 붙는다. 영국의 Hesmondhalgh(2002)이 제시한 Symbolic Text Model에서는 스포츠를 문화산업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야로 분류한다. 즉, 문화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함을 뜻한다. 이를 두고 UNESCO(2008)는 스포츠 역시 인류 문화의 일부이기에 문화산업으로서 창조경제 포함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로서 스포츠가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규칙, 경쟁적 특성으로 인해 창의적 활동에 장애가 되기에 창조경제로 보기 힘들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조경제’라는 개념 안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특히, 축구나

야구와 같은 운동 경기적 요소 자체가 경제적 가치의 중요한 자원일 수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UNESCO(2009)는 국가 문화산업으로서 분류 가능한 스포츠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스모’를 예를 들었다. 이 보고에서 UNESCO는 스포츠가 참여와 관람 등에 있어 문화적 본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스모의 경우, 다른 나라 관점에서 스모는 보편적 스포츠 행위인 ‘참여’와 ‘관람’의 특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구조, 전통성을 내재하고 있는 특수한 문화 행위이며, 스포츠 요소를 배제하고서라도, 그 문화적 특성 자체만으로도 타국을 대상으로 상품적 가치가 있음을 주목했다.

과학·기술 등 인류의 생산 능력 진화는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해가고 있고, 여가와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더욱더 인간을 문화 소비로 이끌고 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그리고 특히, 최근 최상위 선진국 사례 등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듯, 그 진화의 정점 시기에는 대중적 스포츠 소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승리를 위한 훈련, 규칙, 경쟁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스포츠는 핵심 문화산업 분야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인류의 번영을 전제할 경우, 그 가치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태권도는 어떠한가? 태권도의 성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김산, 김창우, 송일훈, 2008; 김태일, 2008; 송형석, 이규형, 2008; 안재찬, 2016; 양진호, 정찬수, 김동규, 2009; 차명환, 2021)에서 나타나듯 태권도의 현대적 정립과 발전은 태동기인 1950년대를 시작으로 경기적 요소보다는 동양 무예의 한국 전통적 접근과 재해석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족적 정체성 확보와 ‘국기’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했다. 즉, 스모의 경우와 같이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구조, 전통성의 특성을 가졌기에, 태권도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창조산업으로서의 이질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스포츠의 본질적 최고 가치인 경기적 요소 또한 최고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경기적 요소는 대중적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스포츠만의 상품적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적극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태권도는 경기적 요소를 발전시켜 나가 스포츠로서의 국제 지위를 확보하였고, 1988년 이후 대표적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기에 글로벌 대중 스포츠로서의 가치도 확보하였다(조현주, 김두한, 2019). 따라서 태권도는 독특한 문화로서의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스포츠로서의 대중적 상품성을 모두 갖춘 독특한 스포츠 콘텐츠라 할 수 있다.

Ⅲ. 성장 동력 ‘한류’와 문화유산 ‘태권도’

1990년대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 이후 중화 문화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류가(이상민, 2014), 오늘날 글로벌 문화 현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박재경, 2018). 또한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시기에 발전한 경제적, 산업적 가치는 IT,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호흡을 함께 하며,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제혜금, 2018). 특히, 최근 한류 문화산업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제조업, IT분야 등 과학, 산업기술을 근간으로 한 한국 기업의 국제위상은 한류 성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이태규, 2021). 한류는 결국 한국적인 독창적 요소 특히, 한국인의 삶과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과 정신세계 등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유입되어 한국화된 것 또한 한류로 볼 수 있다(유인오, 2014).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여전히 그 시작의 논란을 두고 태권도계 스스로 힘겨워하는 정체성과 전통적 한계를 넘어서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한류 개념과 태권도 역사를 종합해 고려하면, 그 시작이 1950년대 태동기의 특성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 하고서라도, 1세대 한류임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발전과 한국 기업의 성과는 스포츠 의류, 용품, 프로선수 등 다양한 스포츠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태권도는 스포츠 한류의 중요한 축이다(김상범, 김동규, 2013; 이승환, 2011).

태권도계는 한류로서의 명성을 지키고, 더욱 성장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김기동, 양대승, 2017; 이재돈, 2014). 외교 수단으로서 태권도는 문화외교(김두한, 서현석, 2017; 전상호, 안용규, 2015)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현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남덕현, 꺾낙현, 2015). 지난 50여 년간 태권도의 외교성과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태권도 진흥재단, 2019). 외교 수단뿐만 아니라 이벤트 콘텐츠로서 가치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물론(양진호, 정찬수, 김동규, 2009),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발전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김기동, 양대승, 장권, 2018; 김민철, 유진호, 박성중, 2020; 전복연구원, 2018). K-pop 문화적 특성과 상품성을 가진 태권도 공연은 문화 콘텐츠로서 상품 가치 또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으며(이정아, 김도균, 2020), 최근 과학, 산업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장용석, 2018).

지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태권도를 포함해 중요 문화산업 콘텐츠로서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 사업에서는 5가지 전략 방안을 설정하고, 생활 태권도의 활성화, 태권도 참여문화 조성,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태권도 부가시장 창출, 태권도 상징성 강화, 태권도 브랜드가치 제고, 태권도 심사 및 단증 발급체계 개선, 태권도 ODA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태권도 리더십 구축, 그리고 단체의 역량 제고 및 협업 확대에 관한 총 10대 과제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들 선정된 과제는 크게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화로서 정착 견고화, 산업적 가치 창출에 집중, 그리고 글로벌 문화유산으로 확장성 강화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UNESCO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검토 부분인데, 과거 원형 발굴과 가치 재조명 등 태권도 문화 보존 차원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검토를 추진 과제로 채택한 부분이다.

실제 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도는 2018년 이래 최근까지 여러 태권도 조직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뉴스핌, 2018; 뉴스스, 2021; 세계일보, 2018; 연합뉴스, 2021; KBS, 2020).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기조에 맞추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과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태권도 발전과

UNESCO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공동 협력과 ITF와 WT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기원 등 민간 기구 역시, UNESCO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 활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IV. 태권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제

UN의 특별기구로서 UNESCO는 인류 문화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다(UNESCO 2022a). 인류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무형적 자산을 보존, 전승하고 이를 위해 사회정의와 규범을 기준으로 교육, 기술개발, 일자리 마련과 고용, 기록 등 다양한 정책을 펴가고 있다. 특히 무형유산의 경우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는 유산이지만, 그 특성상 형태가 없어 사라지기 쉬운 것이기에 이를 보존하여 후세에 전해주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UNESCO 한국위원회, 2022). 이를 위해 UNESCO 내에 World Heritage Centre를 두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최근의 활동은 태권도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지닌 독특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발전, 전승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하여 후세에 전달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임을 국제기구로부터 공식 인정받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UNESCO 한국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표 1>과 같이 밝히고 있으며, 등재 기준의 근거가 되는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2조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과 무형유산협약 제2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기준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 기준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기준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무형유산협약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 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 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 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준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2. 위 제1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명시된다.
 -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나. 공연 예술
 -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마. 전통 공예 기술

(출처: UNESCO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 2022.09.07.)

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의 제1 기준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상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 해야 함이다.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태권도 공동체, 집단, 태권도인 개인이 문화유산으로서 태권도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한편, 한 세대를 넘어서 ‘세대 간 전승’을 전제로 한 문화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진 문화유산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태권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는 아직 한 세기를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역사적 고증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협약 제 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해야 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해결의 방법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동안 태권도계가 수행해온 ‘태권도’의 한민족 고유문화로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역사적 사취 발견과 고증을 지속하여 노력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가 비록 명칭의 변화는 있었으나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태권도는 무형문화유산의 형태로 구분한 ‘언어적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등의 요소를 고루 갖춘 문화유산이기에 그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기준 2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태권도에 대한 가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고,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해야 함을 조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상호 소통, 교류를 활발히 하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와 만나 새로운 형태로 파생되어 더욱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재생산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준 3과 같이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기준 5와 같이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의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 현대사를 비추어, 우리가 UNESCO의 등재 기준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준 4의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하고 가능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과연 지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이 전 세계 태권도 관련 단체나 집단의 사전 인지와 동의를 적절히 구하고 있는지 현 상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한반도 현대사와 큰 축을 이루는 ITF와 WT의 동의와 공동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뿐만 아니라 ATA(American TaeKwondo Association) 등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집단의 사전인지와 동의,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 또한 있다. 이는 위의 UNESCO 무형유산협약 제2조 정의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체·집단·개인 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문화유산만이 고려됨'의 내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2022)은 UNESCO 등재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2조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반영한 듯, 문화체육관광부(2019)의 태권도 10대 정책과 제에서도 북한 태권도 및 ITF와의 교류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중요 과제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남과 북, 그리고 ITF와 WT의 함께 국제사회에서 태권도의 전통적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인류 문화와의 재 창조성을 이루어냄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를 높여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형국에 제약받지 않고 변화나 굴곡 없는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공동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이 필요하다. 특히나 두 공동체의 비방과 갈등 없는 '상호 존중'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나아가 각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태권도 단체나 집단과 상호 우애의 자세로 존중하고, 공존과 협력 태도를 갖추어야만 한다.

2022년 현재 UNESCO(2022b)에 등재된 세계 무형문화유산은 총 631개로 우리의 김치, 씨름, 택견, 연등놀이 등이 등재되어 있다. 그중 스포츠 분야는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중 UNESCO 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과 부흥을 목적으로 별도의 'Traditional Sports and Games (TSG)'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등재 관리하는 문화유산으로는 대표적으로 몽고의 Naadam, Mongolian traditional festival, 이란의 Pahlevani and Zoorkhaneh rituals, 이집트의 Tahteeb, stick game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 줄타기와 같이 스포츠 축제로부터 전통문예와 스포츠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축구, 야구, 체조, 수영과 같이 비록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보편적 활동으로 자리매김한 스포츠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태권도가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이 진정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UNESCO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것은 종주국으로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공인과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독특한 문화 양식과 인류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태권도의 보급과 지속성이 미흡하여 별도의 후세 전승을 위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소멸할 수 있는 취약한 문화유산임을 자처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태권도의 확산·성장한 가치를 오히려 부정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V.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기 위한 태권도 미래 제언

한민족의 중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태권도가 소중한 우리의 것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여러 논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우리 정통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탄생했고, 국기로 지정했으며, 분단 조국의 한계를 넘어서 남·북한 모두가 우리의 것임을 자부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 진출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자원이 과학·산업·기술, 지식 등과 융복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분야로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류 초기 핵심 유산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특히 외교 등의 특정 분야에서는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태권도의 자생 능력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여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반세기 남짓한 세월에 남북한 양국 정부 주도로 빠른 성장을 이룩했기에 그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공적 지원이 멈추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극도로 커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태권도 발

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안정적 수준의 문화유산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남북한 협력과 주요 주체인 ITF와 WT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시 상황인 남북한의 대립과 정치적 문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권도계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ITF와 WT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 노력은 정치 외교 상황에 휘둘러서는 안 될 만큼 확고하고,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뿐 아니라 이 두 단체가 태권도의 주도권을 모두 가지려는 정치적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태권도 단체들과 함께해야만 한다. 국정 과제에서 채택한 10대 과제는 태권도가 해결하고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이 과제들이 정부는 물론 태권도계 전체에서 성실히 지속 이행되어야 한다.

한민족 고유문화 자산으로서 태권도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방안으로서 UNESCO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관리와 관심을 통해 보존·발전·전승의 명분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한 정부의 공적 지원을 보장받는 실리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태권도계는 더더욱 UNESCO 등재에 힘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존과 성장의 과정에서 생산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태권도인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적 생존의 수준을 의미한다. 즉, 더는 특정 국가나 단체의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UNESCO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존·전승·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의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이미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대중적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태권도에 UNESCO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적합한 옷인지 확실하지도 않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한다. ‘UNESCO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다 되는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많다. 전 세계에 다양하다. 이미 1,154개의 세계문화유산, 631개의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고, 이 순간에도 각국에서 수많은 유산을 등

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태권도의 미래를 두고 가장 즐기는 한국 음식(한국관광공사, 2022) 1위 라면, 2위 양념치킨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UNESCO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UNESCO, 2022b)된 ‘김장김치’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가장 바라기에는 그 둘을 다 이루어내는 것을 희망한다. 어쩌면 UNESCO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는 그저 ‘등재’ 그 자체일 뿐일 수 있다. 당장 실리를 얻기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약속하지는 못한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태권도가 진정 문화유산으로 생존하고 진화를 거듭하여 인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장김치처럼 우리의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세계 곳곳에 진출해 라면처럼 그들 문화와 만나 모든 문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인류 모두의 삶에 축구처럼 녹아 들어가 풋살이나, 족구처럼 곳곳에서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 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진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전통과 글로벌 대중화의 조화’ 로운 일종의 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전통의 가치는 숭고하게 지켜가야만 한다. 반면에, 세계 각 인류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 한다. 주류 세력이 주도하기보다는 지원을 우선하고, 세계 각 지역의 군소 태권도 집단들이 다양하게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제한된 시장 가치를 두고 각집단들이 치열하게 자율 경쟁하는 과정과 구조 속에서 우성 요인이 더욱 성장하고 태권도의 자생 능력은 적절하게 진화해 갈 수 있을 것이며, 재창조의 가능성 또한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민족의 유산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VI. 결론

태권도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기 위한 현안과 미래 제언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태권도는 1세대 한류로서 한민족의 문화적 우수성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님과 동시에 대중적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태권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한 정부 간 협력과 WT와 ITF는 물론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태권도 집단의 공동 협력이 필수 되어야 한다. 넷째,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단기적 차원에서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끌어내는 방안이기는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태권도의 대중적 확산 장애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기 위해 태권도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화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신문화로 재생산됨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3).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선순환 : 관점 및 사례. **STEPI ISSUES & POLICY**, 67, 1-17.
- 김기동, 양대승(2017). 태권도 공연의 한류 문화콘텐츠 정착을 위한 제언.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21-30.
- 김기동, 양대승, 장권(2018). 세계태권도한마당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691-70.
- 김두한, 서현석(2017). 외교적 수단으로서 태권도의 활용가치와 지속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학회지**, 15(1), 635-644.
- 김민철, 유진호, 박성중(2020). 국내 태권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미시적·거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기원 태권도연구**, 11(1), 191-216.

- 김산, 김창우, 송일훈(2008). ITF 태권도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0(2), 69-84.
- 김상범, 김동규(2013). 스포츠 한류의 쟁점과 정초과제. **한국체육철학회지**, 21(2), 45-58.
- 김태일(2008). WTF · ITF 태권도의 이질화 극복과 남 · 북 태권도의 통합 방안. **대한무도학회지**, 10(1), 89-102.
- 남덕현, 곽낙현(2015). 한국 방위산업수출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외교 전략. **국기원태권도연구**, 6(1), 97-113.
- 뉴스핌(2018). 남 세계연맹 · 북 국제연맹, 태권도 통합 추진 ‘공동기구 구성’ 합의. 2022.09.0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102000401>. 2018.11.02.
- 뉴시스(2021).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위 구성. 2022.09.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5_0001640895&cID=10501&pID=10500. 2021.11.06.
- 무카스(2018). 분위기 좋아진 WT-ITF 태권도통합 재추진... 이번에는?. 2022.09.07. <https://mookas.com/news/16509> 2018.11.05.
- 무카스(2022).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청신호. 2022.09.07. <https://mookas.com/news/18442>. 2022.05.30.
- 문화재청(2022). 유네스코 등재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2022.9.07.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intCulHeritage.jsp&pageNo=5_3_1_0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 . 세종.
- 박재경(2018). 신한류전환기를 위한 한류 콘텐츠 다각화 전략 모델. 미래성장연구. 4, 55-78.
- 비즈월드(2022).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위한 태권도 역사 사진전 개최. 2022.09.07.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08>. 2021.06.15.
- 송형석, 이규형(2008). 태권도역사논쟁: 신전통주의의 수정주의 비판에 대한 역비판. **한국체육철학회지**, 16(2), 157-177.

- 안재찬(2016). 태권도 역사 담론에 대한 논리적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55(1), 49-59
- 양진호, 정찬수, 김동규(2009).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 조직체계의 특성 비교. **대한무도학회지**, 11(1), 1-10.
- 유중하(2018). **짜장면 : 검은 유혹, 맛의 디아스포라**. 섬앤섬. 서울.
- 유인오(2014). 한류 비즈니스 전략 개발에 있어 트렌드 분석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 메타 미래예측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 **한류비즈니스연구**, 1, 143-166.
- 이정근(2014). 라면의 역사와 한국인 식생활에서의 위상.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4 국제학술대회발표집**. 93-94.
- 이상민(2014). 한류 자원의 활용 전략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론 고찰. **한류비즈니스연구**, 1, 193-210.
- 이승환(2011). 맨 주먹과 한국인의 ‘깡다구’ 로 일군 글로벌 한류 태권도, 이제 중추역인가?. **스포츠과학**, 2011 summer, 18-25.
- 이정아, 김도균(2020). 태권도공연의 상품가치와 관람만족 및 재관람 의사결정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9(3), 433-444.
- 이재돈(2014). 태권도 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5(1), 17-51.
- 이태규(2021). 기업은 한류 엔진. **KERI 컬럼**. 20212-1-15.
- 전상호, 안용규(2015). 이슬람문화 내에서 태권도의 역할과 가치 - 시리아를 중심으로 -. **한국체육철학회지**, 23(2), 159-184.
- 세계일보(2018). “태권도는 위대한 문화유산… 국기 지정해야” . 2022.09.07.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223003915?OutUrl=naver.2018.02.23>.
- 스포츠투데이(2022).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문화무형유산 등재 준비 착수. 0222.09.07. <http://stoo.com/article.php?aid=72273236823>. 2021.05.11.
- 연합뉴스(2021).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위원회' 구성. 2021.09.07.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5088300007?input=1195m.2021.11.05>.
- 장용석(2018). 가상현실(VR)시스템 발달이 낳을 태권도 콘텐츠산업의 미래. **국기원 태권도연구**, 9(1), 177-195.
- 전북연구원(2018).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8-24. 전주.

- 전북중앙(2022). 남북태권도 유네스코 일류 무형유산 등재 맞손. 2022.09.0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583>. 2022.04.02.
- 정명섭(2021). **한국인의 맛. 짜장면부터 믹스커피까지 한국사를 바꾼 아홉 가지 음식 ! 어떻게 조선인은 한국인이 되었는가?**. 추수밭. 서울.
- 제혜금(2018). : serM-SWOT 매트릭스 분석을 중심으로 : serM-SWOT 매트릭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6(1), 75-96.
- 조현주, 김두한(2019).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태권도, 글로벌적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과학회지**, 8(4), 81-92.
- 차명환(2021). 태권도 역사에 내재된 ‘기원’의 의미. 무예연구, 15(4), 81-99.
- 태권도 진흥재단(2019). **태권도 해외진출 역사 연구용역 아시아 - 오세아니아 결과 보고서**. 무주.
- 한겨레(2018). 평양에서 남북 태권도 통합에 합의. 세계연맹-국제연맹, 통합 추진 공동기구 구성키로. 2022.09.07.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68555.html 2018.11.0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Issue Paper. 2013-1**, 1-65.
- 한국관광공사(2022). '미국 내 K-컬처의 위상과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 뉴욕지사.
- 한스경제(2021). 제1회 전라북도스포츠태권도국제융합컨퍼런스 개최. 2022.09.07.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245>. 2021.06.17.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글로벌 동향을 통해 본 IT기반 창조경제. **동향분석 I. 2013-2**, 1-25.
- 홍문표(2022). 홍문표-국기원 '태권도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협약 체결. 2022.09.07.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59402>. 20.01.13.
- Cook, G. (2010). *Movement: Functional Movement Systems: Screening, Assessment, Corrective Strategies*. On Target Publication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2007). *Staying ah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 Printed in the UK on

- recycled paper*. London. UK.
- Hesmondhalgh, D. (2002). *The Cultural Industries. 1st eds*. London and Thousand Oaks,CA: Sage.
- KBS(2020). [남북 공동문화유산 ‘같이 함께’] 한 뿌리 두 갈래 ‘태권도’ . 2022.09.0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2340&ref=A>. 2020.10.10.
- NESAT(2010). *Creative Cluster and Innovation. Putting creativity on the map*. London.
- UNESCO(2008). *Creative Economy*.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tc20082cer_en.pdf
- UNESCO(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http://uis.unesco.org/sites/default/files/documents/unesco-framework-for-cultural-statistics-2009-en_0.pdf.
- UNESCO(2010). *Creative Economy*.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tctab20103_en.pdf.
- UNESCO(2022).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en.unesco.org/culture-development>. 2022.09.07.
- UNESCO(2022b). Browse the Lis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https://ich.unesco.org/en/lists> 2022.09.07.
- UNESCO 한국위원회(2022). 무형유산. <https://www.unesco.or.kr/programmes/culture/> 2022.09.07.
- White, A. (2009). A grey literature review of the 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and Creative Economy research programme. *Cultural Trends*. 18(4), 337-343.

ABSTRACT

Taekwondo Issues and Proposals for Remaining as a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Kim, Hun-il(Cheong-Ju Univ.)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and proposal of Taekwondo to remain as a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aekwondo has the unique cultural identity and tradition of the Korean people. And also, Taekwondo has a commercial value as a global popular sport enough to stand in an international mega sports event. Taekwondo can be considered as the optimal content that matches the national resources pursued by the 'Creative Economy' that is a new major economic paradigm. The 'Korean Wave' , which has grown along with Korea's international status, is the important driving force for Korea's growth, and Taekwondo is the 1st generation of the 'Korean Wave' .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aekwondo, the effort of each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both in Republic of Kore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continuing. And recently, they try process of being list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it is need to set a successful direction must be established from both micro and macro perspective, where or not it was successfully register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surv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aekwondo. For this, as a micro priority tasks, as the key issues identifi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ing requirements, it joint cooperation should be based on the 'Mutual Respect' between the WT and ITF, the major Taekwondo organization is absolutely required, in addition, win-win cooperation with carious Taekwondo organizations other than these two organizations must be accompanied. On the other hand, as a macro strategic tasks, it must not be a culture that is in danger of extinction, which is the meaning of UNESCO World Heritage listing. In other words, it continuous to must be grow as

a global popular sport and sprea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make it the next task for Taekwondo to rise to a level where it can be recreated as a new cultural value by convergence with the region in each culture, nation, and country.

Key words: Taekwondo, K-Culture, Intangible Culture heritage, Cultural industry

논문투고일 : 2022.09.27.
심사일 : 2022.10.27.
심사완료일 : 2022.11.19.